

박영재 교수의 침단 과학과 불교



그림 · 문병성

여성차별

불교인들은 대개 불교가 매우 과학적인 종교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냉철히 살펴보면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내재해 있다. 따라서 침단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불교인들은 이제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 비과학적으로 맹신하고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 우선 시급히 고쳐야 할 관습 가운데 여성차별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이 구별되어 있는 생물체는 원래의 체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의 절반을 갖는 생식세포를 만든다. 이들이 세포융합 과정을 거쳐 반감되었던 염색체 수는 새로 만들어진 세포 속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 수정된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다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은 부모가 되어 출산을 할 경우, 자녀에게 똑같이 유전 형질을 병등하게 반반씩 물려주며, 자녀는 다

만 XY 염색체의 조합에 따라 딸과 아들로 나누어지는 것일뿐으로 여기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뛰어난 과학자 중에는 여성이 그토록 희귀한가?' 서구 문화권에서 행해진 일련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보부아르 부인은 '여성은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1970년대 미국 여성 운동의 영향으로 여러 여성 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과학과 젠더(gender: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시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의미하는 개념)'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과학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1999년 7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대표들은 '과학에서의 남

녀평등 문제를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선언에 서명하였다. 그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정책적으로 여성 과학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종일반 학교, 탁아소 등 가정과 직업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장 잘 마련해 놓고 있어, 여성교

가 비구를 공경해야 할 8가지 계율을 설정한데 있다. <사분율(四分律)>에 나오는 비구니팔경법(比丘尼八敬法)은 교단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조항은 '비록 백세 비구니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계한 어린 비구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친절히 맞이할 것이니 이를 형수(形壽)가 다하도록 여기

구니에게 마땅히 스승의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청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다하도록 여기지 말라'라고 말이다.

또한 계율의 경우도 그렇다. 비구계는 250계이나 비구니계는 348계인 것도 피상적으로만 보면 여성을 차별한 것처럼 보이나, 원래 계율은 승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법제(隨犯制戒: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작은 의지가 굳세지 못한 다수의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니 승단의 형성 과정에서 여성 수행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더 추가된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한국적 현실에서 불필요한 계율들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강구하고 있는 재능 있는 여성과학자 지원육성 정책처럼 불교계도 거부장적인 남성으로서의 비구와 종속적인 여성으로서의 비구니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침단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끌어 줄, 비구 스님이면 비구니 스님이면 성차별이나 노소의 분별없이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갖춘 법사들을 다수 배출하는데 온 힘을 쓸 때라고 본다.

구름과 달은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으나 (雲月是同) 계곡과 산은 각기 다르네. (峯山各異) 일찌구 풍구나 (勿風萬福) 이 하나인가 이 둘인가. (是一是二)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ypark@ccs.sogang.ac.kr

성차별 근거 '비구니 8경법' 아직도... 불합리 계율 폐기... 법사 배출 힘쓸 때

수 비율도 가장 높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젊은 여성 과학자들이 거부장적인 사회 구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결여, 동료 남성 과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으로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하려면, 재능 있는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불교적인 측면에서 여성차별 문제를 살펴보면, 그 발단은 여성을 교단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비구니

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세존께서 비구니 승단의 인정 과정에서 이미 틀을 갖춘 비구 승단으로부터 수행에 관한 노하우를 철저히 전수 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여성차별을 전제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제 이 조항은 지혜로운 대덕 스님들께서 앞장서서 완전히 폐지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바꾸면 좋을 것 같다.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울 것이 있다면 비록 백세 비구니(비구)일지라도 어린 비구(비



'있는 그대로 삶' 인정했다면...

생명 존엄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시력까지 잃은 아들이 죽어 달라고 하니,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훗날 저승 가서 자식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지난 2일, 1급 지적장애인으로 회귀질환인 율스씨병을 앓아 온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같은 장애인 아버지 김 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한 말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일 오후 7시 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죽여 달라'고 아들이 하소연하자 외면하지 못해 아들을 죽이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애끓는 부정(父情)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있는 그대로' 존엄한 존재다. 현재의 상황에 따른 '우열'도 '공허'한 본성에 비추면 보잘것없는 상대평가일 뿐이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생명' 그 자체의 존엄을 훼손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는 것만이 고통을 이기는 길임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듣는다.

【인욕(忍辱)의 힘은 수미산(須彌山)과 같다. <월등심매경>】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병자가 꼭 죽을 것을 안다 해도 죽음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타이러 삼보에 귀의하여 불법 승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고 공양에 힘쓰도록 해주어야 한다. <선생경>】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일러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과 효심심을 일으켜 변치 않아서 방편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구호해야 한다. <범망경>】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한다. 마치 양이 뉘새를 맡아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속에 쳐 넣는 것처럼, 하인과 주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무리는 사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가자 하므로 시끄러운 곳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리하여 '참된 출가인'이란 바로 '참된 속가인'이다. 무릇 출가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평상하고 진정한 견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며, 부처와 마구니?참과 거짓?법과 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마구니와 부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바로 한 집에서 나와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입을 짓는 증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구니가 한 몸으로서 나뉘어 있지 않는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 하더라도 귀유왕은 우유만을 마시는 것처럼, 밝은 눈을 가진 도인이라면 마구니와 부처를 모두 쳐버려야 한다. 그대가 만약 성을 좋아하고 법을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서 뒹가라앉았



다할 것이다.

본래 면목과 계합하려면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 본래 면목은 '여기다' '이것이다' 라고 의식할 만한 그 무엇이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①7 머물렀어 생겨나다

예를 들어, 지금 한 잔의 차를 마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가?' 하고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컵을 가지고 마신다든가, 손과 팔과 입술을 사용하여 차를 마신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다시 질문을 '무엇이 차를 마시는

가?' 하고 물어보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내가 마신다' 혹은 '사람이 마신다' 혹은 '마음이 마신다' 등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나' '사람' '마음' 이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경험되는 모든 것들의 생멸 속에서 생멸과는 상관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짐작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짐작되는 그 '무엇'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만약 이 '무엇'이 육체·느낌·기억·욕망·의식 가운데에 속한다면, 이 '무엇'은 생멸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것이다. 만약 이 '무엇'이 육체·느낌·기억·욕망·의식 등과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무엇'은 짐작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무엇'은 육체·느낌·기억·욕망·의식 등에 속하지도 않고 별개로 떨어져 있지도 않다.

자! 그러면, 이 '무엇'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육체의 움직임·경험되는 느낌·떠오르는 기억·발동되는 욕망·이런 저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3. Four Scenes of Human Existence
This illustrates Siddhartha's decision to renounce his worldly life. First, Siddhartha saw an old person at the east gate of the palace and felt fear of aging. Then he came to know suffering from seeing a sick person at the south gate, later he felt sorrow when seeing a funeral scene at the west gate. Finally he felt happy after seeing a renunciant at the north gate.

이 장면은 싯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싯다르타는 성의 동쪽 문에서 늙은이를 보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남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고통을 알지 되고, 서문에서는 장례행렬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문 밖에서는 출가자를 보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4. Renunciation
Late at night after everyone had fallen asleep, Siddhartha is leaving the palace riding a white horse. He wanted to become an ascetic in order to find the ultimate truth.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싯다르타는 흰 말을 타고 성을 떠난다. 그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자가 될 것을 결심한다.

육 六 임 六 來 來 情 情 비 秘 法 法

◎ **혁 신 판** 1,500,000원 (휴대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全 12 卷**) 1,300,000원 (좌정용 : 부록1권 · 설명비디오 1개)
활인전문전역자용 350,000원 (기존판 : 설명비디오 3개)

이 책은, 「마인더 처리」하여 매월 매일 것을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보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구입하신 후 전화하십시오. 전국어디라도 책 도착 날로부터 3일안에 찾아뵙고 자세히 그 활용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인천역(신도단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 효 사 -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원
육임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 냈습니다.
순서 : 기본편 입문편 전문편 활용편 형이상편 비방편 상담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월장편의 순(順)입니다.
- **육임학당 효사속** 1,2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 총 28개)
육임학당 효사속에서 실시하고있는 3개월 과정의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 되어있어 육임 공부가 독학완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육임학당효사속** 1,500,000원(육임강의록 포함)
오는 9월 6일(금)부터 제 3기 강의가 시작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셔야만 입강 안내 순서에 들게 되십니다

■ **활인천역자(스님 · 오행가 · 신명제자)의 필수서로 이미 검증 되어 있습니다.**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속사정을 시간별로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는 비서입니다.**
먼저 할 말은 앞면에, 묻는 일의 대답은 뒷면에 시간별로 써져 있습니다.

■ **귀신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의 침범을 정확히 먼저 밝힌 후 이를 제거·해소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천도 · 시식 · 부적 · 굿의 효과 여부를 미리 알고 시행할 수 있어 후련하고 명쾌해 집니다. 또 효과가 있게 하는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 「한장 한눈으로 판단하는 사주법」과「한장 한눈으로 짓는 작명 감정법」을 코팅처리로 만들었습니다. 만세력이 필요없이 평생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개 100,000원입니다. 신청하십시오.

▶ **주문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직접배달-정현철) ▶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